

한국, 50년 뒤 기대수명 OECD '1위' 출산율 '꼴찌'

50년 뒤 한국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반면 출산율은 꼴찌가 될 전망이다.

13일 '세계일보'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65~2070년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90.9세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장수 국가인 노르웨이(90.2세), 핀란드(89.4세), 일본·캐나다(89.3세) 등을 앞지르며,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아일랜드(82.0세)보다는 8.9년 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1980년 66.1세, 1990년 71.7세, 2000년 76.0세, 2010년 80.2세, 2020년 83.5세 등으로 최근 50년간 21.2년 길어졌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지표이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된다. 경제 활동을 할 인구가 줄어드는데 복지가 필요한 고령층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2070년 한국의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4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유소년 및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116.8명으로 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65~2070년 평균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일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합계출산율(0.84명)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만약 출산율이 2020년 수준으로 지속되면 한국의 인구는 2070년 3천478만명, 2120년 1천43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기대수명이 비슷한 나라들의 합계출산율 전망은 노르웨이 1.76명, 핀란드 1.66명, 캐나다 1.65명, 일본 1.62명 등이다.

한국 K-9 자주포, 호주 땅 밟는다

호주가 한국으로부터 한국산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금액으로는 9000억원대에 달한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호주는 K-9을 운용하는 8번째 국가가 된다. K-9 자주포는 현재 한국 등 7개국이 1천700여 문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서 터키·폴란드·노르웨이·핀란드·에스토니아·인도 등에 수출됐다. 현재 이집트 수출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 물량이 48%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 최강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독일 판처하우비체(PzH)2000보다 높은 실적이다.

K9 자주포가 해외에서 러브콜이 빗발치는 이유는 뛰어난 기술력 덕분이다. 산악이 많은 한국 지형부터 넓고 광활한 평원, 눈 쌓인 설원, 정글과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 100억 원에 육박하는 독일 PzH에 비해 가격도 40억 원대로 저렴하다. 또 실전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자주포 중 하나다.

K-9 자주포는 구경 155mm, 52구경장으로 최대 사거



▲ 사진=K-9 자주포/한화디펜스

리는 40km다. 자동화된 사격통제장비, 포탄 이송과 장전장치로 급속발사 시 15초 이내에 초탄 3발을 발사할 수 있다. 3분간 분당 6~8발, 1시간 동안 분당 2~3발 사격이 가능하다.

K-9 자주포는 시속 67km까지 달릴 수 있고 고강도 장갑관이 적용돼 적 포병화력의 파편이나 중기관총, 대인지뢰 등에 대한 방호력을 갖췄다. 화생방전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

수출, 사상 최고 기록 경신



▲ 사진shutterstock

주력산업 수출의 견조한 증가와 수출 유망 품목의 약진 등에 힘입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6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11시 36분 집계 결과,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수출 최대 실적인 2018년의 6049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64년 첫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1977년(100억 달러↑), 1995년(1000억 달러↑), 2018년(6000억 달러)을 돌파했으며 3년 만에 다시 최고 수출액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의 무역 순위도 한단계 상승했다. 한국의 올해 수출 순위는 작년과 동일한 7위, 무역 순위는 9년 만에 8위로 도약하며 무역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수출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영국·프랑스 등이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한 반면, 한국은 작년에 이어 7위를 수성했다.

무역 규모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주요국의 무역이 동반 성장하는 가운데, 글로벌 순위를 끌어올리며 9년 만에 8위(최고치)로 올라섰다.

정부는 내년에도 글로벌 교역 및 수요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며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겠지만 코로나19 변이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중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상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 수출이 비록 증가세는 둔화되지만, 올해 실적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